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2021년 종합보세구 수출입 23.8% 증가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1년 종합보세구 수출입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5.9조 위안(약 1,115조원)으로 대외무역 증가율 21.4%보다 2.4%p 높으며 무역 총액의 15.1%를 차지
- 중국내 종합보세구는 총 155개로 해관특수감독관할구의 92.8%에 달함. 최근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종합보세구 관리방법'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종합보세구의 규범화와 법치화를 수준을 제고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할 전망
- 종합보세구의 발전 특징은 중서부 지역의 산업이전 수용 효과가 뚜렷하고 신업종의 지속적인 빠른 발전 견인하는 것임. 지난해 중서부 지역과 동북 3성의 74개 종합보세구 가공무역 수출입이 1조 7,300억 위안(약 327조원)으로 전국 종합보세구 가공무역 수출입의 64.8%를 차지하고, 종합보세구 산업 업그레이드로 보세수리(維修) 업무 수출입이 3.8% 증가한 1,857억 위안(약 35조원)을 달성하였음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www.gov.cn/xinwen/2022-02/18/content_5674421.htm

2 中, 2021년 석유화학 기업 영업이익 126.8% 상승

-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석유화학 기업 매출 총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4조 4,500억 위안(약 2,734조원), 이윤총액은 126.8% 증가한 1조 1,600억 위안(약 219조원)으로 전부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주요 제품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원유 생산량은 2.4% 증가한 2억 톤, 천연가스 생산량은 8.2% 증가한 2,053억㎥이고, 주요 화학품 생산량은 5.7% 증가하였음. 한편, 화학원료와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15.7%로 공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 증가율을 상회함
- 석유화학 분야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38.7% 증가한 8,60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이며 중국 전체 수출입의 14.2%를 차지하였음. 이와 동시에 무역 구조도 개선되어 유기화학제품과 복합재료의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하여 순수입이 감소하였음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www.ce.cn/cysc/ny/gdxw/202202/21/t20220221_37343418.shtml

3 中, 2021년 문화기업 매출 16% 증가...신업종 빠른 성장세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문화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11조 9,064억 위안(약 2,249조원)으로 2년 평균 증가율이 8.9%에 달했음
- 2년 평균 매출 증가율은 9대 문화업종 중 8대 업종이 증가세임. 뉴스·정보 서비스, 창의디자인 서비스, 문화소비 단말 생산, 콘텐츠 제작 등 4대 업종은 각각 16.7%, 13.8%, 10.5%, 9.7 증가, 문화 투자, 문화장비 생산, 문화보조생산 및 중개서비스, 문화전파 채널 등 4대 업종은 각각 8.4%, 7.2%, 3.3%, 3.2% 증가했으며 문화오락·레저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9.2% 감소하였음
- 지난해 디지털문화 특징을 보인 16개 소분류 업종의 매출이 18.9% 증가한 3조 9,623억 위안(약 748조원)으로 2년 평균 증가율이 20.5%에 달해 전체 문화기업 매출의 33.3%를 차지했음
- * 16개 소분류 업종은 방송·텔레비전 통합관제, 인터넷검색 서비스, 인터넷 기타정보서비스, 디지털출판, 기타 문화예술업, 애니메이션·게임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인터넷게임 서비스, 멀티미디어·게임애니메이션과 디지털출판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문화 서비스, 기타 문화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인터넷광고 서비스, 인터넷문화오락 플랫폼, 저작권 문화 소프트웨어 서비스, 오락용 스마트 드론 제조, 웨어러블 스마트 문화설비 제조, 기타 스마트 문화소비설비 제조 등임
- 지역별로는 2021년 동부지역 문화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 16.5% 증가하여 전국의 76%에 달했고 15개 부성급시 매출이 전년 대비 16.3% 증가하여 전국의 32.5%를 차지했음
- * 15개 부성급시는 선양, 다롄, 창춘, 하얼빈, 난징, 항저우, 닝보, 사먼, 지안, 칭다오, 우한, 광저우, 선전, 청두, 시안 등임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sjd/202201/t20220130_1827159.html

4 中, 탄산리튬 가격 상승...신에너지차 업체 원가상승 압력 직면

- 국제 유가 상승세에 비추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월 17일 공지를 발표하여 2월 17일 24시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톤당 210위안(약 4만원), 200위안(약 3.8만원) 인상시켰음
- 전국적으로 92호 휘발유는 리터당 0.16위안(약 30원), 95호 휘발유는 리터당 0.17위안(약 32원), 0호 경유는 리터당 0.17위안(약 32원) 인상되어 일반 가정용 자동차에 50L의 92호 휘발유를 구입하려면 8위안(약 1,512원)을 더 지불해야 함
- 한편 신에너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탄산리튬 가격도 지속 상승세로 올해 춘절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30만 위안(약 5,653만원)을 돌파했으며 한달간 가격 상승폭이 무려 40%에 달했음
- 업계 관계자는 탄산리튬 가격 상승 원인을 신축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외 리튬광산 개발이 위축된 반면 신에너지차 생산속도가 리튬 배터리 생산속도를 초과한데 있다고 밝힘. 또한 정부 보조금 삭감으로 생산업체는 원가상승 압력에 직면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과잉으로 경쟁 요소를 고려하여 이미 출시한 차종은 기존 가격대를 유지하고, 신규 차종 가격을 조정할 것으로 분석함

자료원 : 광저우일보

<https://www.gzdaily.cn/amucsite/web/index.html#/detail/1773654>

5 中, 희토가격지수 연초 대비 24.8% 상승

- 중국 희토산업협회에 따르면 2월 15일 희토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426.8로 올해 연초 대비 24.8% 상승하였음. 상하이유색금속망에 따르면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氧化镨钕) 톤당 가격은 100만 위안(약 1.9억원)을 초과한 110만 위안(약 2억원)으로 춘절 전 99만 위안(약 1.9억원) 대비 10% 가량 상승했고 2011년 최고치 127.5만 위안(약 2.4억원)과의 차이가 13.7%에 불과했음
- 최근 희토 영구자석 관련 상장업체 29개사가 2021년 예상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80%에 달하는 23개사는 실적이 양호하고 바오강그룹(包钢股份), 중국뤄예(中国铝业), 북방희토(北方稀土), 중커산환(中科三环) 등 14개사는 순이익이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찬차이증권(川财证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희토 영구자석 가격 상승 원인은 주요하게 희토 수급 변화라고 밝혔으며, 공업정보화부의 '2022년 제1차 희토 채굴, 제련분리 총량 공제 지표' 발표로 희토 공급 탄력성이 약화되고 일정 기업에 공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수요측면에서 신에너지차, 전자기기 에너지 효율성 제고, 풍력 발전, 로봇 등이 과거 소비전자를 대체하면서 희토 영구자석 수요를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여 수요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전함

자료원 : 증권일보망

<http://www.zqrb.cn/stock/redian/2022-02-16/A1645007774848.html>

6 中 가전·휴대폰 제조업체...속속들이 자동차 시장 진출 붐

- 2월 16일, 메이디그룹은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정초식을 가졌으며, 메이디그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0억 위안(약 2조원)을 투자하였음. 최근 중국내 가전,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샤오미 등 일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였고, 화웨이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산업에 뛰어 들고 있음
- 지난해 샤오미는 스마트 전기차 분야 진출계획을 밝혔고 화웨이는 상하이모터쇼에서 사이러스 화웨이 스마트 셀렉션 SF5를 공개했으며, OPPO는 신에너지차 사업 관련 상표 'OCAR'를 등록하였음
- 하이센스는 일본 산덴(SANDEN)의 지배주주로 등극하였고 거리는 인룽(银隆)신에너지주식유한회사의 30.5% 지분을 인수하여 자동차 시장에 진출했으며, 메이디그룹 산하 웨이링(威灵)부품회사는 허페이 시에서 구동시스템, 열관리시스템, 보조·자동조종장치 시스템 등 3대 생산라인을 가동하였음
- 업계 전문가들은 비록 가전,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제품과 소프트웨어 관련 풍부한 응용경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제약을 받고 또 테슬라, 니오(蔚来), 샤오핑(小鹏) 등을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광저우일보

http://www.ce.cn/cysc/zgjd/kx/202202/21/t20220221_37343131.shtml